



“직접 기른 농산물
믿고 먹을수 있어”
할머니의 사랑 ‘뽕’

진 진안고원시장에 장이 열리는 날이면 다른 지역의 장날과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한 손에 보파리를 들고 버스에서 내린다.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할머니들은 하나둘씩 내려간다.

할머니들의 발걸음은 진안고원시장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할머니들은 보파리를 풀어 나물과 채소들을 좌판에 놓는다. 이것, 저것 조금씩 내 놓은 농산물이 신선하다.

한 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할머니들이 시장 한쪽을 차지하고 좌판을 편다. 이 할머니들은 누구일까. 바로 ‘고향할머니 장터’에서 농산물을 파는 분들이다.

▲65세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기른 농산물 판매

진안고원시장이 열리는 날 이곳에 오면 이들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다.

자신들이 텃밭에서 키우고 산과 들에서 채취한 농산물과 나물들을 갖고 시장으로 나온 것이다.

2015년 10월 처음 시범 운영될 때만 해도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고향할머니장터’가 진안고원시장의 대표 얼굴이 됐다.

‘어머니의 정’이 담긴 청정 농산물을 노인들이 읍내와 도회지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해 용돈과 건강을 챙기도록 배려해 만들었다.

할머니마다 명찰을 걸고 있어 사실상 실명제로 진안에서 생산했다는 품질인증을 해주고 있다.

얼핏 보면 로컬푸드 형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 농산물은 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닌 자신들이 먹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주기 위해 소일거리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고향할머니장터’에서 구매한 농산물은 더 믿고 먹을 수 있다.

봄에는 산나물과 봄동, 두릅이 나오고 여름과 가을엔 당근, 토란, 오이, 고구마가 풍성하다. 겨울철엔 손맛이 깊은 메추와 두부, 도토리묵이 판매된다.

호응은 뜨겁다. 우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할머니들이 부지기수다. 2015년 당시 15명이었던 할머니들은 이제 60명이 넘어섰다.

수입은 많아야 하루 5만원 안팎이지만 할머니들에게는 귀중한 용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손자가 오면 용돈도 준단다. 그런 재미로 할머니들이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장을 찾고 있다.



지역 시장의 ‘얼굴마담’ 등극
읍내·도회지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 건강 챙기도록 배려
실명제로 품질인증 해줘
지역 농산물 구입 입소문에
인근 도시민들 발걸 이어져

진안고원시장과 고향할머니장터를 찾는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진안산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마이산 등 인근 관광지를 찾는 도시민들이 시장을 꼭 한 번씩 들르고 있다.

‘고향할머니장터’ 전용 휴대용 카드결제기가 있어 신용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다.

진안고원시장은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장이 열리며,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주말시장이 열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을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 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